

國際化時代의 林政

李 在 石 / 한국양묘협회장



지금은 국제화시대요 개방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질서에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 하는것이 우리 임업과 임정에도 결코 예외일수는 없다.

특히 산림문제는 UN환경개발회의 이후 세계 각국이 종전의 임정기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思考)와 기존의 기조(基調)를 전환해야할 입장에 있다.

우선 지난해 6월에 리우 환경회의 이후 UN환경회의에서 산림원칙성명이 성명에 끌리고 협약이 아닌만큼 세계 산림질서가 서서히 바뀌어질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국제 산림보호추세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제 나왕시세는 6개월새 2배가 폭등을 하고 합판용재도 60%가 올랐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일반용재로 도입을 하는 주종을 이루는 미송의 경우도 1년 전에 m³당 153\$ 하던것이 지금은 247\$로 62%나 상승을 했다는 업계의 보고가 있다.

이러한 조짐은 얼핏 생각하면 그동안 외재가 너무 들어와서 국내산 목재가격이 형편없이 되어 국내 산림자원조성에 치명타를 친것임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임업이 가 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는 우리 국내 임업이 나아질 전망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수입되는 외재를 대체할만한 자원이 없다.

그런데 임정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국내 산림자원조성도 조성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급한 문제가 목재의 원활한 안전공급이란 과제이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것을 미리 전망은 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2-3년을 두고 생각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줄 알았는데 국제 원목시세가 60-100%가 갑자기 뛰고보니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목재가격이란 수입원가가 있기 때문에 행정능력으로 가격안정을 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워낙 수입원가 상승폭이 커서 관세(關稅)로 조정하는것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데도 때를 놓친감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화시대요 개방화시대를 맞아 시장성 원리에 위배되는 규제도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산주들이 울것이 왔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90%이상 외재를 수입 충당하면서 나무를 너무 낭비하다싶이 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목재사용을 제한하고 대용재 사용을 늘리면서 어느정도 수요를 줄이고 원목수입시장의 다변화(多邊化)를 기하는 동시에 세계면에서 목재가격을 점

진적으로 안정해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목재가격과 국내 산림 자원조성과는 배치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목재 가격 정책이 곧 산림정책이 되기도 한다.

국내 산림자원조성을 위해서는 목재가격이 대폭 올라야하고 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가격이 안정되어야한다. 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는 없다.

이것은 옛 유행가의 가사처럼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격이 된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될줄 믿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함에 있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문호를 개방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해야한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기까지는 물론 국민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빼 놓을수 없는것이 하나 있다.

일본의 행정은 협회 조합행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협회원이나 조합원은 각기 자기 전문 산업분야에서 생업(生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이다.

때문에 그 협회 조합에서 그 부문에 애로 사항 정보 문제점의 타개책을 집약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협회나 조합에 물어보면 다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극히 능률적이고 핵심적이다.

말을 바꾸면 각 협회나 조합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것이 일본행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행정당국은 협회나 조합이니 하면 우선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규정한다. 그래서 업자의 말이라고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협회나 조합은 전문성이 집약되고 생업이라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진사람을 외면하면 어디에서 옳은 정보를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우리의 이와같은 구습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정치에 있어서도 협화협회(協和協會)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협화협회의 성격은 일본내의 협회 조합의 총연합회다.

일본 임업의 경우는 임업계의 협회와 조합의 총연합인 임업동우회가 협화협회의 회원이 되어있다.

임업에 관한한 임업의 의견을 총집약 해서 협화협회에 전달함으로써 일본 정치계와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일본 임업동우회에서는 여러가지 일을하고 있다.

일본내의 임업여론의 집약은 말할것도 없고 임업계 출신을 국회에 내보내는 자금까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원적가치사회(多元的價値社會)에서 어느 특수분야가 살아남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이웃 일본의 예만 들 필요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국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가 협회라고 볼수 있는 American Forester Association이 있는데 굳이 우리 말로 번역하면 미국 임업가 협회다.

이곳에는 미국 임업가들을 위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자료와 정보

“

소유구조 조정은 막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교환·분할, 매입자금등을 지원해야하므로 이를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

이 소유구조와 병행해서 소유구조 조정이 어려운 방치된 산림은 공영으로서 경영구조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가 미국 임정당국이나 대학교재로 널리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산림행정당국이 이 A. F. A의 여론과 자료를 바로 미국 임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임정은 살아있는 임정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지면을 빌려 구차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다.

자기가 필요해서 샘을 파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림이 없다.

우리가 구구한 이론을 교과서나 상식에서만 구할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는 제일 잘 아는 협회 또는 조합을 육성해서 이를 정보제공자 또는 자료 제공자로 활용하라는 이야기다.

우리 임정도 이제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여기에 착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깊고 넘어가야 할 일은 임업기조(基調)의 전환이라고 본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임업의 기초문제

가 되고 기본문제가 되는것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

이 임업에 있어 기초 전환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임업의 구조조정이라 하겠다.

우리가 답답해서 때로는 200만 산주를 앞세우지만 이러한 산림 소유구조로서는 너도 임업이 안되고 나도 안된다.

때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소유구조조정을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것이다.

우리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인만큼 영세한 산주들이 임업경영 동기와 임업경영의욕이 주어지지 않은곳에 수평적으로 국고 예산을 투입하는것은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소유구조 조정을 위해 이 취지에 반하는 모든 법령은 개폐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상속세라 할수 있다.

지금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산림으로서 30ha 미만의 산림은 상속할 경우 상속세 면제가 되는바 이는 전체 사유림 소유자 90%이상인 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것은 국제화시대의 산림경영규모로 구조조정을 하는데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는것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소유구조 조정은 막대한 기금을 만들어서 교환 분할 매입자금지원등을 해야 함으로 이를 위한 기구도 필요하다.

이 소유구조와 병행해서 소유구조조정이 어려운 방치된 산림은 공영으로서 경영구조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아무튼 이런것들이 국제화 개방 시대에 대처할 일들이 아닌가 한다.